

◆ 설교요약 ◆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딤후 3:1~7)

03/19/17

본래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1.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구원얻음 (3:4,5)

- (1)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고
- (2) 중생의 씻음(죄 사하심)으로
- (3)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2.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음 (3:6,7)

- (1)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 (2)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 (3)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얻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순종해야 합니다.

○ 오늘의 말씀 ○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딤후 3:4-5)

“But when the kindness of God our Saviour, and his love toward man, appeared, not by works (done) in righteousness, which we did ourselves, but according to his mercy he saved us, through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ing of the Holy Spirit...” (Titus. 3:4~5)

◆ 설교요약 ◆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딤후 3:8~11)

04/02/17

바울은 디도에게 미리 복음의 근본적인 것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인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들에 관하여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군세게 말해야 하고 지켜야할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3:8)

- (1) 복음에 대하여 군세게 말하는 것  
(중생, 칭의, 영생의 소망)
- (2)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는 것

2. 우리에게 무익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3:9)

- (1)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하는 것
- (2) 분쟁하는 것과 율법에 대하여 다투는 것

복음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하는 것과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그 내용은 중생과 칭의와 영생의 소망에 관한 것인 반면에, 어리석은 변론을 하는 것과 율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무익한 것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특히 이단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 오늘의 말씀 ○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군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딤후 3:8-9)

“Faithful is the saying, and concerning these things I desire that thou affirm confidently, to the end that they who have believed God may be careful to maintain good works. These things are good and profitable unto men: but shun foolish questionings, and genealogies, and strifes, and fightings about law: for they are unprofitable and vain.” (Titus. 3:8~9)